

2026  
03

#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amt.or.kr

## CONTENTS

###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02 FOCUS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수가 제도 전면적 검토  
필요하다

### 03 KAMT NEWS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

### 04 KAMT NEWS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난 2026년 2월 28일(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내빈소개와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상병리사 윤리강령 낭독, 노경운 총회의장의 개회사, 이광우 협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전재진 상임부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장종태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협회 발전과 임상병리사 직역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노경운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정기대의원총회가 협회의 지난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직역 발전과 함께 보건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협회가 회원과 국민을 잇는 보건 의료 전문직 단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광우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협회는 임상병리사의 권익 보호와 직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통합돌봄 연계 사업, 전국 시도회 커뮤니티 강화 등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회원과 함께 직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성원보고와 의안채택 및 의안심의로 시작해 △전 회의록 승인의 건 △2025년도 회무 및 경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사업실적, 결산, 종합감사 보고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정된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통과됐다.

제51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오민우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수가 제도 전면적 검토 필요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

최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체수탁 개편 논란에 이어 4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검사 보상' 재조정을 통해 검사 수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선 검체수탁 개편 논란을 들여다 보면 갑자기 발생한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행 검체검사 수탁제도에서 만연한 불공정 행위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검체검사 개편안은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해 110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100이라는 범위 내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를 조정할 후 분리청구를 도입하여 검체검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수탁관리료 폐지에 대해 110으로 지급하던 것을 100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위탁관리료 폐지로 발생하는 손실은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는 2026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 전체(3,037억원)를 빼앗기는 구조이기에 개원의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비용분석을 통해 2년마다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4차 상대가치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 수가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결국은 검체수탁 개편안의 개원이 손실분을 검체수가의 인하를 통해 메꾸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 ■ 현장 의견이 배제된 수가 조정은 검사 질 저하와 임상병리사 고용 불안을 초래

보건복지부는 원가 분석을 근거로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조정된 수가 외에도 남은 검사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도 검사 영역이 수술 영역에 비해 과보상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진단 검사 영역의 비용 분석에서 검체검사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이유로 수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24시간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검체검사는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체계의 핵심 기반 기능이다. 나아가 국내 진단기기 산업의 기술 축적과 내수 시장 형성을 견인해 온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 현장의 원가 구조와 산업 생태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반복적 수가 인하는 고품질 검사 서비스 유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부정확한 원가 산정과 통계 오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근거로 '검사 자동화에 따른 원가 절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단검사의 실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데 있다. 검체검사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면 장비의 자동화된 과정으로 결과가 산출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채혈부터 검체 접수, 전처리, 장비 가동, 결과 판독, 그리고 비정상 결과에 대한 재검사와 장비의 정밀 유지보수(Quality Control)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임상병리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원가 산정 방식은 최신 고정밀 장비의 도입 비용, 시약 가격의 가파른 상승, 무엇보다 숙련된 임상병리사의 인건비 상승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에서 반영되는 원가보상을 산정의 기초자료와 분석 방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중별에 따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가보상을 산정하는 방식은 의원급과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표본집단과 데이터가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지적했듯, 틀린 통계에 기반한 수가 조정은 결국 검사 현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밀의료 시대에 진단검사는 치료의 출발점이다. 자동화가 검사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이 실제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 수가 인하는 곧 임상병리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

진단검사 수가 인하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며,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진단시약 및 장비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진다. 진단검사는 전문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다. 수가 인하되면 경영진은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역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및 중소병원은 현행 검체검사 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지역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서 신규 임상병리사 채용이 동결되거나 기존 인력이 감축될 경우, 남은 인력의 업무 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숙련된 정규직 대신 저임금 비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상병리사의 고용 불안은 단순히 한 직종의 생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공공보건 의료 체계의 숙련된 인적 자산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 검사 질 저하는 곧 환자 안전의 위기이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밀 의료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이다. 낮은 수가는 필연적으로 저가 시약 사용과 장비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이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일 경우 검사 오류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단 0.1%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부의 수가 인하 강행은 결국 국민들이 누려야 할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검체검사 수가는 대부분 2015년 상대가치 개편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후 인건비 상승, 장비 유지비, 품질관리비가 급등했지만 수가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의 수가 구조는 검사 난이도나 인력 투입, 장비 의존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상대가치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다. 검사실의 인력 구조, 환자 안전, 체외진단 산업 경쟁력까지 맞물린 구조 개편이다. '자동화와 효율성'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수치들이 실제 진단검사 현장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추가 설명과 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요구된다. 수가 정책은 단순한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문성식 (영남대학교병원) 서민숙 (울산대학교병원)  
심미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염석재 (씨젠의료재단) 이용석 (서울아산병원)

##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정성두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최우수지회 표창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최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집행부 근무표창

지우현 총무이사	윤선한 보험이사
신형식 재무이사	이경배 총무부장
최병후 학술이사	박태화 학술부장
장성호 교육이사	한민석 교육부장
서경아 공보이사	임효경 교육부장
주태영 정보통신이사	박준범 정보통신부장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서희승 정보통신부장
김동현 법제이사	권오형 기획정책부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송형석 정무부장

## 우수지회 표창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우수분과학회 표창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전국수석

김지승 (동의과학대학교)  
노종민 (대구보건대학교)  
박채은 (신성대학교)  
이수민 (안산대학교)  
조혜찬 (혜전대학교)

## 협회장 공로패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대표)  
남현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성현호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회장)  
손재형 (대한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회장)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협회장 표창

조인숙 서울시회	조명희 부산시회
김수봉 대구시회	김미희 인천시회
박 철 광주시회	이나영 대전시회
정인혜 울산시회	박미영 경기도회
최민준 강원도회	김영민 충청도회
문은숙 충남도회	김현미 전북도회
전영호 전남도회	김극준 경북도회
박경훈 경남도회	김성훈 제주도회
이혜린 임상혈액	강지상 임상수혈
육근돌 미생물	천혜찬 임상화학
정흥수 핵의학	손보민 임상생리
안은아 공중보건	송현근 검사정보
이신일 조직세포	이승남 임상유전
	조영은 임상면역

## 직원 근무 표창

권은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사무국장)  
이은지 (중앙회 사무국 경영사업국 사원)  
박소현 (중앙회 사무국 경영사업국 팀장)  
손다정 (중앙회 사무국 행정지원국 대리)

## 협회장 특별상

오지은 (극동대학교 교수)  
주태영 (중앙회 정보통신이사)  
정선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단장)



##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포함한 27개 연대단체와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조정식, 김영호, 이수진, 서영교, 김남희, 박희승, 장종태, 전진숙, 김윤, 안태준, 김선민, 서미화, 최은석, 한창민, 송재봉,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8개 의료기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남인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전환과 이에 따른 보건 의료 전문직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이 토론회에서 강조됐다.

## 2025년 사업실적 및 결산

### 정책 활동을 통한 임상병리사 위상 강화

우리 협회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과 돌봄통합지원법 등 보건 의료 주요 현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직능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임상병리학 학제일원화와 보건 의료 인력 전문성 강화 등 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 회원 업권 수호

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채혈, 폐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전문 업무를 타 직업이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시정요청을 실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채용 공고 및 국가 조사 사업 등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에 행정지도 요청을 진행하며 지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검사 수행 인력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 활동을 이어갔다.

### 학술 및 전문교육 체계 강화

협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국내외 임상병리사와 산업계 관계자,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면접 특강, 임상채혈 실기 교육, 프리젠테이션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연수강좌를 운영했으며 국가검진 폐기능검사 실무교육을 실시해 현장 검사 역량 향상에도 힘썼다.

### 회원 서비스 및 협회 운영 역량 강화

협회는 사무국과 회원과총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보수교육, 면허 신고, 협회비 및 홈페이지 이용 등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했으며 회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시도회와 분과학회, 산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재무, 보수교육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해 조직 운영 역량을 강화했으며 법제 포럼을 개최해 협회 관련 법제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사회공헌 및 대외 홍보 활동 확대

협회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후원금 기부를 비롯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또한 메타버스 엑스포와 국회 입법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검사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해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아울러 돌봄봉사지원단을 모집해 임상병리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중앙회 동정

02월 03일 제2차 학술부-다루소프트 회의  
02월 07일 제188차 정기이사회  
02월 11일 제1차 임평원 운영위원회  
02월 13일 제1차 한일교류공로자회의  
02월 20일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02월 04일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02월 10일 총무부&교육부&정통부-다루소프트 회의  
02월 11일 제1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02월 20일 총회의장단 회의  
02월 28일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 서보경 임상병리사 인터뷰

### -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종사자의 근로 현실과 과제를 묻다 -

중소병·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며 임상병리사의 근무 현실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서보경 실장.

최근 대구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해 검사실 인력 구조와 근무환경, 그리고 검사 질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했다.

중소병·의원 보건의료근로자가 직면한 현실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서보경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안녕하세요, 실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총괄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서보경입니다. 지난 20년간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는 실장으로서 검사실 운영과 인력 관리, 질 향상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실제 근무 현실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지난 겨울에 참석하신 토론회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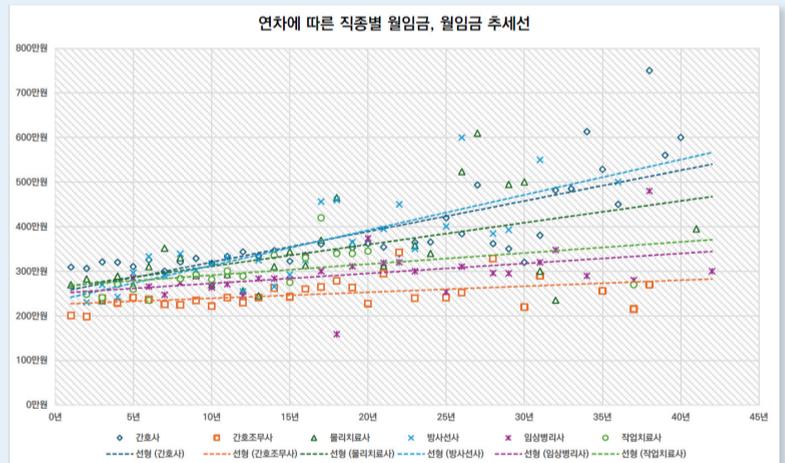
A.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대구광역시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 실태조사 및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지역 중소병·의원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검사 정확성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의원 현장에서는 직무 경계의 붕괴, 인력 부족, 계약 및 보상 체계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개선 요구가 아니라, 협회와 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논의 사항과 실장님 발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A.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의원의 인력 구조와 근무환경, 그리고 검사 질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강조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상병리사의 직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검사 업무 외에도 접수·수납·청구·보조 업무 등 비전문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전문성 약화와 검사 질 저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최소 인력 운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구조입니다. 휴식 보장과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장기간·연속 근무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상황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 질 관리와 시설·안전 기준의 미비 문제입니다. 외부 신빙도 조사 참여, QC 운영, 시설 기준 등이 병원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Q. 현장에서 체감하신 임상병리사들의 주요 고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임상병리사 직군에서는 '임금 구조 개선'과 '경력 반영 체계 구축'이 가장 높은 정책 필요도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병·의원에서는 경력이 누적되어도 임금 상승 폭이 제한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직과 경력 단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소 인력 구조'입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여러 파트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휴가나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시간의 불일치, 연장·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 부재 등 보상 체계의 불투명성 역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더불어 임상병리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근로 조정이나 대체 인력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는 있으나 활용하기 힘든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검사 신뢰도와 환자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협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중소병·의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문 업무와 비전문 업무의 구분을 통한 직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 노동시간 기준 적용과 연장·야간·주말 근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셋째, 임상병리사 표준 임금 체계와 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외부 신빙도 조사 확대와 정도관리·시설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검사 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임상병리사의 노동 환경 문제는 단순한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신뢰도와 환자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력이 쌓일수록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며 오래 머물고 싶은 임상병리사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임상병리사회

### 학술발전생활안정위원회 후원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함박눈이 내리던 지난 1월 24일(토) 회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권익 보호와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후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유광철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주요 후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유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각 후원사 관계자들에게 지원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간담회는 참여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12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총 15개 사업체가 현장에 참석하여 협력 네트워크의 외연이 한층 확장되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후원사들도 지원 의사를 밝혀오에 따라 향후 회원 지원 사업의 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2026년 1월 31일(토) 경산시 계림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경과보고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감사결과 보고 △2026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이 진행됐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선출직 대의원 선정과 발전기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도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도회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임상병리사 전문성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는 2026년 1월 31일(토) 삼성창원병원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1부 개회식으로 시작해 이종욱 의장의 개회사와 곽진영 회장의 인사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태근 감사위원의 경상남도회의 회무제반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양 위원은 교육프로그램(심장 초음파, 채혈실무)을 통한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우수하고 마산 로봇랜드에서 진행한 상반기 보수교육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선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곽진영 도회장은 올해는 중소병·의원인 많은 경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진행되던 보수교육을 일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단 강사 교육과 폐기능 강사 교육 등 국가검진 관련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에서는 2026년 1월 16일(금) 광주 어반브룩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기원진 총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정훈 회장의 인사말과 박종오 행정부회장의 협회장 격려사 대독, 시상식, 의안 채택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요일 저녁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6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했다.

서 회장과 광주시회 임원진은 회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행사와 회원들에게 필요한 행사를 추진해 회원들이 행복한 임상병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2026년 1월 21일(수) 라온제나호텔에서 제 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경과 보고 △2025년도 사업결산 보고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임상병리사 윤리강령을 함께 낭독하며 보건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책무와 윤리적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구시회는 지난 한 해 메디엑스포 참여를 통한 시민 대상 검사 홍보 활동과 봉사활동, 분야별 보수교육 운영, 심화교육 추진 등으로 현장 역량 강화와 교류 확대에 힘써 왔다. 또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병행해 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활동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구시회는 2026년에도 교육 체계 고도화와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지속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 운영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는 2026년 1월 31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재적 대의원 165명 중 118명(참석 98명, 위임 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노일권 총회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황문선 회장은 “2026년에도 교육·학술·회원 화합을 중심으로 그동안 잘해왔던 사업들은 더욱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며 “올해가 마지막 임기인데 그동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서울시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서울시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회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전 회의록 승인의 건 △2025년도 결산 심의의 건(경과 보고, 감사 보고, 사업 실적 보고, 결산 보고) △회칙 개정(안) 심의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 계획(안) 심의의 건 △중앙회 대의원총회 상정(안) 심의의 건이 진행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2026년 1월 31일(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홀C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도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회무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도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회원 간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 폐기능검사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는 2026년 2월 7일 동천동강병원 인근 트레저프라자 회의실에서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폐기능검사가 추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시회는 1차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원활한 검사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날 교육에는 울산시회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활량 검사 방법 및 해석, 검사 장비 사용법, 폐활량 검사 실습 및 평가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울산시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 2026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2026년 1월 31일(토) 제1회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학술대회 및 교육사업 운영 성과와 재정 집행 현황이 보고됐으며 결산 자료를 통해 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안)이 상정되어 신년도 학술·교육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전략이 논의되었다. 학회는 임상미생물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 참여 확대와 실무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이 함께 심의되었으며 학술 및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공유했다.

황유연 학회장은 “투명한 회계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회원 중심 학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 채혈실습 강좌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는 2026년 1월 10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채혈 이론 교육 및 실습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미래 임상병리사가 될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채혈 실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손 소독 방법을 비롯하여 실제 환자의 채혈 시 채혈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 채혈 부위에 따른 채혈 도구(syringe, scalp, vacutainer)선택 방법, 채혈 후 vacuum tube에 주입하는 과정까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는 10개 대학 100명의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좌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44명 중 39명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2026년 제4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 입교식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선기)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2026년 2월 21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조직세포검사학회 교육장에서 제4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신민식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과 자문위원 3명이 참석했다.

입교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귀빈과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임원 소개가 진행됐으며 신민식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장과 박노원 자문위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 4기 교육생 14명의 소개와 양성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입교식이 마무리됐다.



제4회 세포전문병리사 양성교육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4층 조직세포검사교육장에서 2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총 160시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대면교육과 8주간 화요일 온라인 교육(2시간)이 병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오는 9월(예정)경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전문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 제1회 주니어 임팩트 세미나 & KACLS 설명회 개최

- 정책·학술·진로를 잇는 학생 주도형 학술 플랫폼 첫 선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하기관인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ACLS)는 2026년 2월 21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관 지하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주니어 임팩트 세미나 & KACLS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책 특강과 학생 학술발표, 학회 설명회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학생 주도형 정책·학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7개 팀의 대학생들은 임상병리사의 미래를 위한 '3대 혁신 정책'을 공동 화두로 제시했다.

첫째, 통합돌봄 체계 확대에 대응한 '지역사회 방문 검사 제도화'다. 학생들은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 K-Mobile Lab 모델을 통해 임상병리사가 병원 검사실을 넘어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사회에서 재가 기반 건강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둘째,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한 '진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의 직무 재정의다. 단순 검사 수행을 넘어 진단 데이터를 분석·해석하는 전문 직역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맞는 법·교육·수가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셋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4년제 학제 일원화'다. 학생들은 국제적 직무역량 기준에 맞춘 교육체계 통합이 직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한규 수석부회장, 최병후 학술이사, 김동현 법제이사, 장성호 교육이사는 학생 발표를 경청한 뒤 직역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협회 측은 "차세대 임상병리 인재들이 정책 담론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KACLS 설명회에서는 성현호 학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 학회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학술지인 KJCLS가 스코푸스(Scopus) 등 국제 색인 등재를 추진하며 국제화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현호 학회장은 "국제화는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그만큼 투고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일반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성, 교육, 정책, 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 아카이브지 'KACLS' 창간 취지를 밝혔다. 성 회장은 "KACLS는 연구 중심 저널과는 달리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실천적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직능 정책, 교육 사례, 현장 보고, 문화 콘텐츠를 담아내는 소통형 학술 아카이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상병리사가 '검사실 내부의 전문직'에서 벗어나 보건의로 전달체계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자리였다. 'Precision in Research, Impact for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제1회 주니어 임팩트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임상병리 분야가 연구 중심 학문을 넘어 정책·제도·현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학술발표 주제>

통합돌봄시대, 임상병리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방현지), 지도에서 협력으로: 임상병리사 직무범위 재정의와 의료법 패러다임 전환(박주연)  
보이지 않는 직업, 임상병리사(장예원, 조가은, 최주은, 김채운),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한 한국 임상병리사 역할 확대(오연호, 정유하)  
임상병리사 4년제 학제 일원화 연구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조민경, 김수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지역사회 방문검사 제도화(박하윤, 김준영), 기다림을 넘어 찾아가는 진단으로(노윤희)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Korea, Seoul)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



 OPEN  
Healthcare

 02-2114-8000  
 www.ohc.global  
 ohc@ohc.global



#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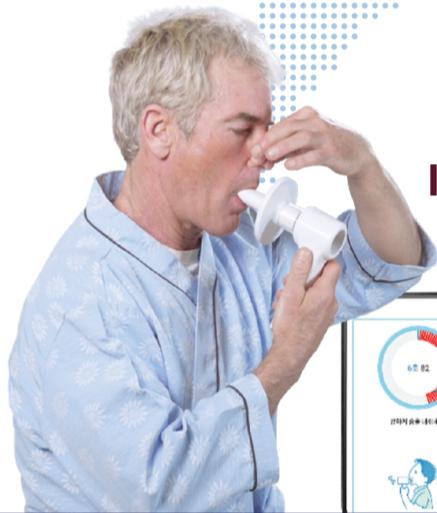
## 2026년 일반검진 수가 안내



분류	기준	금액	비고
공단검진 기본 (상담료 + 흉부 + 기본혈액검사)  상담료: 9,740원 기본혈액검사: 14,650원 (소변 : 940원 + 혈액검사: 13,710원)	흉부(14×14)	34,110	흉부(14×14) : 9,720원
	흉부(14×17)	34,430	흉부(14×17) : 10,040원
	흉부(CR or DR)	32,690	흉부(CR or DR) : 8,300원
	흉부(Full PACS)	33,660	흉부(Full PACS) : 9,270원
	흉부(Full PACS 판독의뢰)	32,690	흉부(Full PACS 판독의뢰) : 8,300원
의료급여 생애 건강검진	기본 상담료	9,740	
공단검진_이상 지질혈증	TCHO+HDL+TG	14,280	남 24세, 여 40세 이상 4년마다
	LDL실측정	7,800	
공단검진_B형간염	일반(항원+항체) : 정성	5,340	40세
	정밀(항원+항체) : EIA	31,030	
	정밀(항원+항체)핵의학적방법 : RIA	35,310	
공단검진_C형간염	일반(항원+항체) : 정성	5,340	56세
	정밀(항원+항체) : EIA	18,620	
	정밀(항원+항체)핵의학적방법 : RIA	20,350	
골밀도 검사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DXA)	45,620	54, 60, 66세 여성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28,700	
	QCT	34,930	
	PQCT	34,930	
	QUS	14,350	
폐기능 검사(56세, 66세)	기본 폐기능검사	16,400	56, 66세
	간이 폐기능검사	4,800	
생활습관 평가	흡연_1개	6,000	40, 50, 60, 70세
	음주_2개	7,500	
	운동_3개	9,000	
	영양_4개	10,500	
	비만_5개	12,000	
인지기능장애(KDSQ-C)		5,440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PHQ-9)		5,380	20~34세 2년 마다, 35~39세 1회, 40~70세 10년 동안 1회
조기정신증 검사(CAPE-15)		6,000	20~34세 2년 마다
노인신체검사-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2,400	66, 70, 80세
구강검진	일반	8,300	
	생애(치면세균막 포함)	3,000	
	공휴일 가산료	2,490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 : 83,83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휴일 가산료 : 2,920원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TR  
CORPORATION

#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KAMT NEWS



## 검사 결과 최신 지침 참고 분석 및 해석 보조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검사결과분석 지원
- 폐기능검사 지표의 해석 일관성 및 검사품질 향상

##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을 통한 표준화 된 검사 과정 안내
- 검사 오류 및 재검률 감소로 검사 시간 효율화
- 검사 중 환자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 국내 생산 기반이 국산 폐기능검사 장비

- 3L Calibration Syringe, 온습도기압계, 검사기 등 모든 장비 국내 생산
- 국제 폐기능검사기 품질기준 ISO 26782:2009에 따른 시험성적서 보유

## 다양한 검사 환경 대응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외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 (무선 PACS 연동을 통한 병동검사 지원)
- 공단 폐기능검진 및 특수폐기능검사에서도 활용 가능

### 제품문의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회원  
권익  
보호

# 응급실 내 임상병리사 고유 업무 범위 사수 및 전문성 확립 사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해석을 둘러싼 직역 간 업무 범위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내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를 타 직역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와 전문성을 지켜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정맥로 확보 시 등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10.4.)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양성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1.31.)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25년 12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부터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 내 계약직 임상병리사들의 잦은 입·퇴사와 구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1.31.)을 근거로 응급실 소속 임상병리사 6명의 직종을 응급구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병원 측의 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응급실에서 정맥로의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과 POCT업무는 응급구조사가 법령상 수행 불가한 고유의 업무인지 여부, 둘째, 그 외 응급실에서 임상병리사만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여부였습니다.

협회는 위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법리 검토와 현장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처치'와 '진단검사'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정맥로 미확보 시 채혈 및 POCT 업무에 대해서는 1급 응급구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정맥로 확보 시'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채혈이 가능할 뿐이므로, 정맥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심전도 측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없다. 또한 POCT(현장검사)는 진단검사의학적 판단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정도관리(QC) 및 장비 관리의 법적 주체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설치된 모든 검사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QC), 교정 및 검증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장비 관리는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의료사고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표 참조)

구분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업무 성격	진단검사 수행 및 검사 전·중·후 QC 관리	응급처치 및 생명유지 중심 처치
업무 목적	질병 진단·치료 판단을 위한 검사	환자 생명유지·응급상황 안정화
정맥로 확보	X (고유업무 아님)	O (응급처치 목적에 한함)
정맥로 확보 중 채혈	O 검사 목적 채혈	응급처치 과정상 부수적 행위만 가능
POCT (혈당, 혈액가스 등)	O 고유업무	X (불가)
POCT 장비·시약 관리	O 전담 및 책임 주체	X (불가)
심전도(ECG) 검사 수행	O 검사 목적 ECG	응급상황 모니터링 목적에 한정
심전도 결과 관리·보관	O 검사 결과 관리 책임	X (불가)
검사 결과 신뢰성 책임	O 법적 책임 주체	X (불가)
검사 오류 발생 시 책임	O	X (불가)
검사 전 단계 품질관리	O 고유업무	X (불가)
응급상황 초기 대응	보조적 협력	O 주 역할
의료진 검사 의사결정 지원	O	X (불가)

계명대학교 병원은 협회가 회신한 상세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적정성 평가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5년 12월 30일 열린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응급구조사가 임상병리사 업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직종 전환 부적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 6명의 정원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지켜낸 사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타협할 수 없는 환자 안전의 핵심 가치를 병원 경영진에게 분명히 각인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원칙을 현장에서 관철시킨 큰 의미를 가지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병원에서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사수한 사례는 협회가 축적된 법리적 전문성과 신속한 행정적 대응력을 기반으로 회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 감상평 EVENT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접수기한** • 2026년 3월 20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 제517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2026년도 제53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인터뷰**

• 최은정(정회원) / 면허번호 : 39410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단연 제54회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분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했다'는 성실함이 공통적인 비결이라는 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노력과 오답 노트를 통한 끈기 있는 복습 과정 등을 보며, 미래의 임상병리 현장을 이끌어갈 후배들의 든든한 저력을 미리 엿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을 넘어,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이들의 다짐을 보며 저 또한 현직자로서 초심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성실함으로 무장한 멋진 후배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준 이번 기획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기 임상병리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곽민정(정회원) / 면허번호 : 21846

연식이 있는 저같은 임상병리사는 솔직히 변화가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새로운 폐기능검사 장비를 접했을 때 어리숙한 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인지라 지금은 제법 빠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능 검사결과를 SI가 진단하는걸 보고 앞으로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업무 영역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큰 기회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SI가 검사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해석하며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까지는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기사의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2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성공적 통합돌봄 법·제도적 장벽 허문다



**세이프  
타임즈**

"피 한 번 뽀으려 구급차?" ...  
임상병리사 227명 국회 집결



**더메디컬**

"병원 밖에서도 재활·검사 가능해야"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의료기사법 개정 한목소리



**세이프  
타임즈**

"검사 질 저하 불보듯 ...  
환자 안전 위기, 피해는 국민"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 수가, 재원 조달 수단 삼아선 안돼"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현장 의견 배제한 검체검사 수가인하,  
국민 피해 초래할 것"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전문성 법제화·업무범위 명확화 추진"



**병원신문**  
The Korean Hospital News Weekly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의기총·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총력



**세이프  
타임즈**

의기총·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 요청



**의학신문**

의기총 "통합돌봄 안착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시급"



**KBS**

'통합돌봄' 재택의료 동행해보니...개선할 점은?



##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해주세요.



부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임상병리사회



인천시회  
임상병리사회



울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임상병리사회



충남도회  
임상병리사회



전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임상병리사회

###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서울시회   
임상병리사회



대구시회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임상병리사회



충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임상병리사회